



귀여운 사천왕 캐릭터 신세대 포교 나선다

와이드스크로프기획팀 제작 보급

근엄하고 무서운 이미지의 사천왕이 친근한 모습의 캐릭터로 변신했다. 와이드스크로프 기획팀(팀장 표성중)이 제작전과 사천왕상 등을 불교문화 캐릭터로 개발한 것. 사천왕은 수미산에서 사방으로 불법을 지킨다는 네 신장으로 사찰 입구에 모셔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캐릭터는 사천왕이 풍기는 강한 이미지 대신 청소년들이 쉽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대화된 색상, 회로 모양의 신비로운 문양 등을 사용하고 있다.

캐릭터 개발을 위해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을 비롯 불국사, 해인사 등 1백여 사찰을 찾았다는 표성중씨는 "경전속에 있는 다양한 불보살을 신선한 감각에 맞게 디자인 했다"며 "이런 작업을 통해 신세대 포교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팀원 8명이 모두 불자인 와이드스크로프팀은 젊은 감각에 맞는 열쇠고리, 목걸이, 엽서 등 편시 용품 이외에도 불교 일러스트를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자구성할 계획이다.

김주원 기자(jkim@buddhopia.com)

"연기법은 청소년 환경윤리 지침"

선진규범사 '청소년의...' 논문서 주장

자비·평등사상 고취 자연파괴 예방 효과

"전체가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이법(不二法)과 연기론은 청소년들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불교환경윤리관이다."

선진규(봉화산수련원장·65·사진) 법사는 국립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청소년의 환경윤리관 정립에 관한 연구-동양적 사고인 연기론과 불이법에 근거하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청소년 불교환경윤리를 제시한 '청소년의 환경윤리관...'은 경남지역 초·중·고교생 1천 31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환경의식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경운동을 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찮다'(88%), '그때 가봐야 알겠다'(8%), '별 생각 없다'(4%)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환경을 대하는 행동양식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이다'(72%), '나무와 풀을 먹으면 아플 것'(62%), '음식물을 남기면 미안하다'(72%) 등으로 응답해, 청소년들이 불이법과 연기론에 친숙한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선법사는 "연기론과 불이법은 '나'와 '자연'을 한 몸으로 생각하게 하는 부처님의 환경윤리"라며 "청소년들이 이같은 환경윤리를 더욱 선호할 수 있도록 불교교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환경교육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연기론은 자연 파괴의 인(因)은 인간 파괴의 과(果)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며, 불이법은 '나'와 '자연'을 각각 구분하는 차별심을 초월해 모든 것에 똑같은 불성(佛性)이 담겨있다는 평등심을 낳게 하는 진리라는 것이다.

선진규 법사는 논문에서 "불교의 환경윤리관에는 우주만물, 삼라만상 전부가 부처이기 때문에 유·무정을 전부를 '높이 받들고 존경'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부처님전에 삼법공양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맺는 불교 화혼의식. 11월 29일 제갈윤석군과 김현주양이 첫선을 보였다.

"홍의 동녀(紅衣童女)의 인도하에 신부가 입장합니다. 칠경화(일곱 송이 꽃)로 장엄한 꽃을 들고 부처님전에 입장하고 있는 신부에게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9일 서울교역문화회관 거문고홀, 중앙에 모셔진 부처님과 형형색색의 연등, 화병 등으로 장엄된 식당. 이날 결혼식은 재래 사원에서 거행되던 혼례의식을 <석문의법(釋門禮儀)> 등 문헌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조명, 정립한 불교화혼의식으로 치러진 것. 이날 백년가약을 맺은 신랑·신부는 제갈윤석군과 김현주양. 두사람 다 우리는선우 회원이다.

삼법공양 올리며 백년가약

다례원, 석문의법등 문헌고찰 의식 정립

양가 부모님이 법등(法燈)을 들고 촛불을 밝힌후 화혼의식을 알리는 의미로 부처님께 합장 예배. 이어 향 등 꽃 등 3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삼법공양이 뒤따랐다. 주례 법사가 등단한 다음, 청의 동자(靑衣童子)와 청정 향수(香水) 의식 인도하에 신랑이 입장. 법사 앞에 합장 예경한 후 신부를 맞는다. 나란히 선 신랑신부는 주례 법사의 인도에 따라 삼귀례를 마치고, 주례법사는 성스러운 화혼의식을 부처님께 고하고 축복을 발원하는 고유문을 봉독한다. 신부는 두 송이 꽃을 들고 신랑과 함께 부처님전에 공양, 세세생생의 아름다운 인연을 서원하고, 부처님께 합장 예배 올린다.

주례 법사는 신랑신부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연등을 밝히게 하고, 내빈 일동이 사홍시원을 올림으로써 끝난다.

이날 화혼의식은 월운스님(봉선사 회주)과 고산스님(쌍계사 주지)이 고종하고, 해거스님(금강선원 주지)과 흥운스님(동국대)이 감수하여 다례원(원장 정승연)이 의식정립과 연출을 맡았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opia.com)

주부신행담

하나님을 떠나며 ② <광>

불

교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둘째 딸은 첫 딸을 가슴에 품은 나에게 또다른 삶의 희망이었다. 그 아이 역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기까지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나 역시 겁때리 불자였기에 둘째가 짙게 가지 않려고 해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주교를 믿는 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했다며 불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절에도 가고 학생회에도 가입했다. 나는 둘째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궁금했다. 둘째는 천주교를 믿는 친구가 자신도 그런 종교에 회의감을 느꼈을 때 성경 공부를 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불교에 대해 무관심하고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반성했다고 했다.

그렇게 자신의 종교를 택한 둘째의 권유였기에 난 별다른 고민 없이 불교방송국을 다니며 교리 공부에 몰두했다. 강의 중에 어려웠던 부분은 둘째에게 물었다. 둘째는 책을 찾아가며 나에게 설명해 줬다. 어려운 스님의 말씀보다는 간단하게 말해주는 둘째의 설명이 내 맘에 쏙 들어와 다음 강의 준비도 수월했다. 스님들의 법문은 메마른 내 가슴에 단 풀이 되었고 하루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그림·문병성

불법인연 심어준 두 딸에 감사

교리강좌를 여러 달 끊임없이 들으며 법우(法友)들도 많이 생겼다. 단순히 절에 가서 시주하거나 내교 삼배나 하며 기복 신앙으로 그쳐왔던 나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목마라 하는 이들이 그토록 많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들과 함께 성지순례도 가고 이곳 저곳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한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전 있었다.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을 찾았던 내가 지금은 '관세음보살'을 먼저 외우게 됐다.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내 삶이 향기롭게 여겨졌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떠난 첫째 딸을 생각한다. 떠난 지 20년이 다되도록 내 꿈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이가 둘째의 꿈에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묘했다. 아이의 천도재를 지냈다. 그날 따라 내 슬픈 마음을 아는지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렸다. 천도재를 지내니 부처님과 인연이 닿지 않았던 첫째에게 불법을 알려주고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전한 것 같아 안심이 됐다.

내 눈엔 딸들이 이전 모두를 관세음보살로 보인다. 내게 불법의 연을 심어준 두 아이. 첫째 딸의 죽음으로 인해 불교에 발을 들여놓았고, 둘째 딸로 인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감사한다. 이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라. 먼저 간 첫째도 좋은 곳에 태어났을 거라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부처님 법 안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정숙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머뭇머뭇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opia.com>

건강 365일 <39> 무우씨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한방에서 라복자란 이름으로 사용되는 무우씨는 복창과 척취를 다스리고 음식을 소화시켜 담을 삭히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일식집에 가던 생선회 밑에 무우씨를 깔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소화 작용을 돕기 위해서다.

단순히 소화제의 역할 이외에도 무우씨는 기를 잘 통하게 하는 통기제로도 쓰이며 중풍에 걸려 말을 못하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태음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의 소화제와 거담제로도 사용된다.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똑같은 질병을 앓더라도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체질의 특성에 따라 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소

태음 체질 소화제·거담제로 쓰여 氣 잘 통하게 하며 복창 치료작용

개하는 무우씨도 태음인 체질에 한해서만 효험이 있다. 태음인 체질은 우선 성격이 우직하고 점잖다. 배장이 두둑하고 스케일이 큰 것도 이 체질의 특

성이다. 또 땀을 많이 흘리며 발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한다. 대체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며 폐기능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뛰는 운동은 별로 좋아하

지 않는다.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폐활량이 적어 피부로 호흡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멍이 크고 피부조각이 성글다. 산소 흡입량이 적어 항상 기(氣)가 부족해지기 쉽다. 따라서 기부족으로 인한 기순환장애로 신진대사가 원활치 않아 담(痰)이란 노폐물이 형성된다.

담이 위장에서 형성되면 병명 없는 위장병이 발생해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거북한 증상이 일어난다. 이때 무우씨를 이용한 처방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후라이엔에 무우씨를 약간 볶아서 절구에 으갠다음 한 시간 정도 달여서 먹는다. 1회 복용량은 8g 정도이며 1일 2회 복용한다. (02)762-5510

심리검사·자기표현 훈련 목동회관 21일부터

목동청소년회관 상담실(실장 백중하)은 12월 21일부터 99년 1월 4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자기표현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심리검사'는 지능·성격·적성 검사로 각기 구분, 매주 월·금요일 본 회관 상담실에서 실시된다. 적성검사는 매주 수·토요일 운영한다.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자기표현훈련'은 99년 1월 19일까지 매주 월·화·목·금요일 실시된다. '자기표현훈련'은 청소년이 소집단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거칠고 공격적인 성격을 온화하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 (02)646-8341

돌안경

대덕 스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서울 흑석동에서 「세신안경점」을 운영하던 이성욱입니다.

흑석동에서 운영하던 십수년간 저희 돌안경을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시던 스님들께 다시한번 인사드리며, IMF 한파와 수공작업

의 어려움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행생활의 일환으로 스님들을 위한 돌안경을 꾸준히 가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벌의 돌안경을 스님들께 선물하는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자 합니다.

세신안경의 돌안경을 아껴주시는 스님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 12월 8일~99년 1월 8일까지 ※

분당세신안경

TEL : 0342)703-5049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이성욱 합장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게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간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제발전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법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에 의해 제발전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구 등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간에 氣 치료능력, 氣 응용능력이 될 수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 (4세~83세)

-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들의 의료적 증시자
- ② 남에게 좋을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을 가지려는 분
-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온세롭게 하려는 분
-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재계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 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우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애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미용효과와 단식효과를 줄이는데 쓰인다.
- ③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 ④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아달아(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묵화 처단) 특별보사!

특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승기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수맥파 방지출연협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주) (02)242-0331, 242-0255 (야) 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정승준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